

고전소설

교학 04	임진록	○
적용 01	포천이문	-
적용 02	왕수재취득용녀설	-
적용 03	서해무릉기	○
적용 04	반씨전	○
적용 05	현몽쌍룡기	○
적용 06	대관재몽유록	-
적용 07	금방울전	○
적용 08	적벽가	○
적용 09	옹고집전	○
적용 10	옥단춘전	○
적용 11	김순부전	-
갈복 04	인현왕후전	-
실전 01	황새결승	○
실전 02	금환기봉	○

수능특강 수록 지문

이원의 왈,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이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이일을 선봉으로 삼아 고각을 울리며 나아가니, 왜장 평행장이 부장(副將)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 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을 싸우더니 이일이 패하여 달아나니, 종일이 따라 미치지 못하고 이원의 진을 치지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이로 인하여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패군을 가두어 진을 치고 여러 장수더러 왈,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용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털미를 잡아 땅에 부딪쳐 죽이니,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터이다.”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 왈,

“네 동리가 어디뇨?”

대답하여 왈,

“용강(龍岡)이라.”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용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청하니 응서 왈,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喪中)에 있으니 어찌하리오.”

원익 왈,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백성 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오.”

하며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靈前)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보검을 주어 연습하라 하더니, 하루는 응서 왈,

“소장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베어 오리니 장군은 일지병*을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 접응 하소서.”

하고 비수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이 졸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군 십여 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 관중(關中)에 동축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히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이 소피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왈,

“어떤 사람이관대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냐?”

응서 왈,

“나는 이원의의 부장(副將)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저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그 기생 왈,

“종일이 관중에 거처하되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저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경 후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나니, 이제 천비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들을 탐지하여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거늘,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종일의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날아서며 잡았던 보검을 들보를 치니,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올새, 그 기생이 울며 왈,

“장군이 소첩을 사지(死地)에 두고 가려 하느냐?”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순라군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향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왈,

“네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왜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왈,

“네 간계(奸計)로 우리 장수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새,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정을 대적하매 기력이 기진한지라. 즉시 전대로 기생의 허리를 매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 자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대로하여 평수맹을 일 합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는지라. 응서 도적 수습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상 안일봉이 군을 거느

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을 고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복성화차: 길한 별이 그려진 꽃 비녀.

*일지병: 한 무리의 병사

르다국어연구소

임진록 - [고1 2020년 11월 학력평가]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행장이 거제에 진을 치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내고 있었다. 하루는 행장이 부하 장수인 요시라에게 말하였다.

“이순신을 결판낼 계책을 행하라.”

요시라가 명을 듣고 평소 교류가 있던 김응서를 찾아가 은근히 말하였다.

“우리 평행장은 본래 처음부터 화친하고자 했으나,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서로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소이다. 오래지 않아 청정이 [A] 다시 바다에 나오니, 내가 연락하거든 그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조선의 원수도 갓고 우리 장군의 한도 씻을 것이오.”

응서가 이 일을 조정에게 고하니, 조정에서는 요시라의 말을 믿고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아가 청정을 치게 하였다. 권을 또한 한산도에 이르러 순신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간사한 계략인 줄 알고 출전을 주저하였다.

정유년 정월에 드디어 용천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 달 십오 일에 청정의 선봉 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

뒤이어 요시라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청정이 이미 물에 내렸다.”

이미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허물을 순신에게 물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은 칠천도에서 크게 패하고,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한다.

순신이 군관 십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과에 이르니,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순신을 따르거늘, 순신의 군사가 이미 백여 명이 넘었다. 순천에 이르러 무기를 내어 가지고 **보성에** 가서 보니, 겨우 십여 척의 전선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전라 수사 김억추를 불러, 전선을 수습하라 하고, 또 다른 장수에게는 서둘러 전선을 만들라 하고, 또한 장수들을 모아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왕명을 받자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말씀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여, 차라리 육지에 올라 싸우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순신이 이렇게 임금께 아뢰어 청하였다.

임진년부터 오륙 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요해처를 지킨 결과입니다. 이제 신이 전선 육십 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이까. 그러하오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리이다.

정유년 구월에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어 오거늘,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길,

“십여 척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

하는데, 거제 부사 안위가 가만히 도망하려 하는 것이었다. 순신이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쳤다.

“안위 너가 어찌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너가 이제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안위가 당황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길,

“어찌 진척지 아니하리이까.”

하고는, 적전에 달려들어 싸우는데, 적선이 안위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안위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를 본 순신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 순신을 둘러싸고 어지러이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순신이 바다에서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장수들이 탄식하여 말하길,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통제사를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듯 위태로우니 어찌 가만히 있으리오.”

하고는,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니라.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순신이 그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이니 결국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나)

S#51. 우수영. 이순신 집무실.

한 획... 한 획... 혼이 담긴 글씨. 숙연한 얼굴의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이순신(NA*)**: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B]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파르르 떨**린다. 왼손으로 잡고 **다시 글씨를 이어** 가는 이순신.

이순신(NA): (힘주어) 신이 살아 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장계 쓰기를 마치자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이순신. 이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럭

열린다. 안위를 비롯한 송여중, 김응함, 김억추, 송희립 등의 장수들이 몰려 들어온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장수들이 출병을 앞두고 대책을 묻자, 이순신은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밝힌다.

안위: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상기되는 이순신의 얼굴. 다른 장수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친다.

장수 일동: 불가합니다!

안위: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전선이 귀하고 군사 한 명이 귀한 때입니다!

이순신: (짐짓) 정녕 그리 생각하는 것이냐?

안위: (눈물을 흘리며)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이순신: (의외로 **답답**하게) 그대들의 뜻이 정히 그러하다면……. 좋다,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거라.

이순신의 의외의 태도에, 장수들의 안색이 다소나마 밝아진다.

S#52. 우수영. 마당. (밤).

바람에 흔들리는 햇불의 **화광(火光)**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뭔가 기대감들이 섞여 있는 긴장된 분위기다. 앞줄에 서 있는 안위 등 장수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크다. 이순신이 칼을 옆에 들고 군사들 앞으로 나온다.

이순신: (군사들을 쓱 훑고는) 김돌손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하며 커다란 기름통을 들고 나타나는 김돌손, 황보만. 군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순신: 부어라!

김돌손, 황보만: (망설인다) …….

이순신: 붓지 않고 뭐 하느냐!

김돌손과 황보만이 동시에 “예!” 하고는 기름통을 들고 가서, 이순신의 등 뒤(군사들의 정면)에 위치한 우수영 **본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다. 놀라며 웅성거리는 군사들. 안위 등 장수들이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이순신을 쳐다본다.

군사들 뒤쪽, 나대용 옆에 서 있던 혜희가 두 눈을 지그시 감는다. 김돌손과 황보만이 기름을 다 붓자

이순신: 불을 놓아라!

김돌손: 예!

“뭘 일어래!” “안 돼!” “장군님!” “안 됩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온다. 안위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김돌손이 본채 앞에 햇불을 들고 서서 이순신을 쳐다본다.

이순신: 놓아!

김돌손이 햇불을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본채. 설마설마하며 지켜보던 군사들의 낮빛이 파랗게 질린다. 할 말을 잃고 멍한 얼굴들이다. 불타는 본채를 뒤로하고 선 이순신이 입을 연다.

이순신: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탄식을 쏟아 내는 절망에 빠지는 군사들의 면면.

이순신: 우수사 배설이 그제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구선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구선도 더 이상 없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육지라고 무사할 듯싶으냐!

이미 사색이 된 군사들이 고개를 떨군다.

이순신: 똑똑히 보고 있느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 살아도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전철홍 · 김한민, 「명량」-

*NA(내레이션):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

1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응서를 찾아갔다.
- ②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할 것을 시켰다.
- ③ 김억추는 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다.
- ④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안위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다.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51에서 이순신이 숙연한 얼굴로 장계를 쓴 것은 S#52에서 장수들이 기대감을 키우는 것의 원인이 된다.
- ② S#51에서 안위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S#52에서 이순신의 망설임이 표출되는 것의 근거가 된다.
- ③ S#51에서 안위가 군사 한 명도 귀하다고 한 것은 S#52에서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의 이유가 된다.
- ④ S#51에서 이순신이 군사들을 모으라 명령한 것은 S#52에서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의 동기가 된다.
- ⑤ S#51에서 장수들이 싸움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S#52에서 이순신이 우수영 본채를 불태워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의 계기가 된다.

18.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② [A]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고, [B]는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며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③ [A]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④ [A]는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A]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B]는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르다국어연구소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사 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상황을 직접 묘사할 수 있고,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등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극 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없어 주로 대사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제시되는데, 연출을 위한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상황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순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고, (나)에서는 안위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며 이순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군사들의 정서가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전투를 '명령하'는 순신의 '다급'한 태도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장수들에게 대답을 하는 이순신의 '답답'한 태도가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서 순신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고, (나)에서는 '화광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는 긴장된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장수들이 '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는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순신이 '파르르 떨'리는 손의 '경련'에도 '다시 글씨를 이어가'는 행동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임진록 - [고3 2007년 6월 모의평가]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찾아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사가 망극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의(母子之義)를 끊으리라.”

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등청정의 집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삐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대로하여 ㉠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노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으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발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으되 저러한 재주

는 처음이라. 천신 같도다.”

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초토: 거적거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 시석: 전쟁에 쓰는 화살과 돌.

* 포선: 상주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덕령은 종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냈다.
- ②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신민의 도리보다 아들의 도리를 요구했다.
- ③ 상복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이 둔갑한 인물이다.
- ④ 김덕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했다.
- ⑤ 가등청정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했다.

44.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썩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45. '김덕령'에 대해 정리한 다음의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생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인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개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다. ◦ 다른 사람에 비해 용맹과 힘이 뛰어났다.
주요 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김덕홍이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다. ◦ 모친상을 치른 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 매부 김응희가 여러 번 왜적을 토벌하라고 권유했으나 주저했다. ◦ 최담령 등 수십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왜장 가등청정이 경계를 강화할 정도로 뛰어난 의병 활동을 하였다.

- ① 출생지를 달리 설정한 것은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주요 행적을 단순화한 것은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상중에 출전한 것으로 바꾼 것은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겠군.

46. 문맥으로 보아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1점]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임진록 - [고3 2012년 6월 모의평가]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알,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든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알,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곤이들으리
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알,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버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도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
응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든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
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
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
국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베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
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왓,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
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띄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
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
미하거든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왓,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
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행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리이다.”

㉠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
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행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
를 베어 상에 받쳐 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
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든 관백이 주왓,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
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
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든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
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알,

“네 왕이 행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
이 관백에게 알,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
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아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왓,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항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항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알,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
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
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검검한
지라. 왜왕 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
(七魄)이 달아나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봉명 사신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선참후계 :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입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르다국어연구소

이러저러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여승으로 변장하고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大洋)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 있고 천봉만학이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다. 마침 달빛마저 넓게 비추고 있어 그야말로 경개(景觀)가 절승한 곳이었다.

유생이 배에서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가(人家)는 없고 산수 경치가 더욱 맑고 수려하였다.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며 10여 리를 더 들어가니 거기에 큰 섬이 있었다.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10여 호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나 되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치를 비할 데가 없었다. 이에 유생이 반드시 은인(隱人)이나 도사가 사는 곳이라 생각하여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옷을 단정하게 입고 샷갓을 바로 쓰고 바람을 메고 죽장을 짊고서 양식을 구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로되 저렇게 아름다운 여승은 더욱 처음이로다.”

이에 유생이 대답하였다.

“소승은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어라 부릅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서해무등이라는 곳이오.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지요.”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람이 무거워 뿔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유생이 이에 이곳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함을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지냈고,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밤, 비몽사몽 사이에 한 노승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 네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오시(五時)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 씨가 반가워하며 사례하고자 할 때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최 씨는 한낱 꿈속의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정오 무렵 계선이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옥 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청수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방불하였습니다.”

최 씨가 다 듣고는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계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여승은 내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蓮步)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계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었다.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바람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샷갓 밑에 옥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최 씨가 보니 낮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중략 부분 줄거리] 유생은 최 씨를 따라갔다가 최 씨를 납치해 간 장군과 우연히 마주치고 장군은 여승을 수상히 여겨 멀리 내쫓는다.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 나와 원촌(遠村)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굴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유생이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 온 양식으로 연명하며 었드려 지냈다.

마침 그곳은 장군의 집 뒷산이었다.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에 장원 밖에 와서 두루 살펴보았으나 실로 들어갈 곳이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유생도 어찌 할 바를 몰라 장탄식이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없었다.

이때 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하였는데, 하루는 정 부인이 최 씨를 불러 날래며 발하였다.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사이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택일하여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모름지기 소저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최 씨가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의 신세가 이러하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정 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장군은 핍박하여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여 혼삿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뿐이었다.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네 지아버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바삐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라.”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 깨어 보니 잠결에 꾸 한바탕 꿈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올리며 말하였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마침 유생이 담장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여 말하였다.

“남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 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 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였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오.

르다국어연구소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서해무릉기 - [고1 2019년 9월 학력평가]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연과 최월혜의 혼례 날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하여 서해무릉으로 끌고 간다.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 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마침내 일 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에게 빌어볼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어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빌었다.

[A]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 유객(路上遊客)이 되어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옹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의 은덕을 내리시어 유연의 정성을 살피주시기 바라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 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절을 중수(重修)하여 부처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원하고 절 방으로 돌아와 그 밤을 지낼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다.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네 아내는 아직 빙옥(氷玉)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 있으니 안심하여라. 그러나 네게는 아직 인연이 멀었으니 삼 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절을 중수하여라.”

유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 보니 납치일몽이었다. 놀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유생은 금산사를 떠났다.

동구 밖에 나오자마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아낙에게 고깔과 누비 바랑을 만들어 달라 하여 어깨에 걸쳐 메고 구절죽장(九節竹杖)을 짚고 길을 나섰는데 영락없는 스님의 행색이었다.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과 사해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고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든지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사의 모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어느덧 이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이때 유생은 장삿배를 따라 아니 간 데 없이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 씨의 거처를 알 수 없었다. 또 기력도 다하여 겨우 근근이 머리 들 힘밖에 없었다. 이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B]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연과 최 씨를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겪으며 고생한 것은 모두 최 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인데, 천지신명께서는 어찌 이다

─지 무심하시어 끝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 선창(船窓)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비몽사몽 사이에 문득 금산사 부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네 수액(數厄)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으므로 머지않아 최 씨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나 최 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하느니라. 이후 다시 몽조(夢兆)가 있을 것이다.”

유생이 깨어나 꿈속의 일을 생각해보니 바로 최 씨를 만날 수 있다는 몽조였다. 이에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최 씨를 찾아 나섰다.

이때 도적 장군이 최 씨를 훔쳐온 뒤, 그녀가 옥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녔음을 보고 만고의 절색이라 여겼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급히 길일을 택하여 혼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최 씨가 송죽(松竹)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만약 위력으로 핍박하다가는 아름다운 보옥이 부서지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장군은 다만 빨리 세월이 지나 최 씨가 체념하고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중략)

최 씨가 서해무릉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蓮步)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 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계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샷갓 밑에 옥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최 씨가 보니 낮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취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風霜)과 천신만 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아주 놀라고 무척 기뻐하며 침통해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이 오히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 계선이 있고 또 좌우의 눈과 귀가 두려워 반갑고 놀라운 기색을 역지로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한편 유생은 온 나라를 떠돌아다녔어도 끝내 찾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최 씨를 만나게 되니 천만의외였다.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좌우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으로부터 사람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한 소자가 아래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후시나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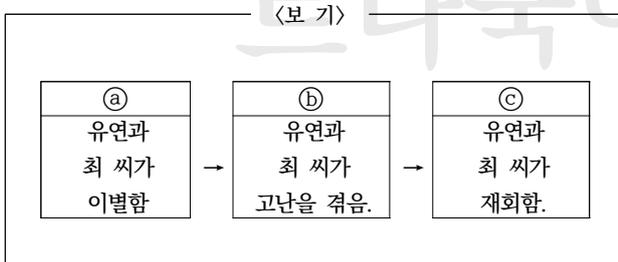
여러 번 살펴보니 초췌해진 얼굴과 슬픔에 젖은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선명하고 참신하며 미려한 그 모습은 완연히 최 씨였다.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西海武陵記)」-

4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사건의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군.
- ② ㉡에서 유연은 ㉢를 위해 팔도강산을 헤매게 되는군.
- ③ ㉡에서 유연은 초월적 존재를 통해 ㉢를 예상하게 되는군.
- ④ ㉡에서 최 씨는 계선의 신뢰를 얻어 ㉢를 준비하게 되는군.
- ⑤ ㉢에서 최 씨는 유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걱정하고 있군.

44.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고, [B]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를 비판하고 있다.
- ② [A]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B]는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조건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⑤ [A]는 행동의 이유를 밝히며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고, [B]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고 있다.

45. 다음은 뒷글을 읽고 문학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의문]

왜 제목을 ‘유연전’이나 ‘최씨전’이라고 하지 않고 ‘서해무릉기’라고 했을까?

[탐구 과제 설정]

‘서해무릉’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것 같으니 인물별로 그 의미를 탐구해 봐야겠어.

[자료 조사]

‘서해무릉’에서 등장인물들은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한다. 또한 애정을 지켜 나가거나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한다.

[탐구 결과]

(가)

- ① 수삼 년이 지나도록 유연과 떨어져 지낸 것을 보니 ‘최 씨’에 게는 시련을 겪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최 씨를 납치한 뒤 혼례하려고 한 것을 보니 ‘도적 장군’에게는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잃어버린 배필인 최 씨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니 ‘유연’에 게는 소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도적 장군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마음을 돌리지 않은 것을 보니 ‘최 씨’에게는 애정을 지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니 ‘유연’에게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수능특강 수록 지문

[앞부분 줄거리] 위운,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맏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씨는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양 부인에게 하직하고 맹 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할새, 채 씨 왈,
“이제는 그대로 외로운지라. 반 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오. 필경은 잔명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놀아가 있음이 기하리다.”

맹씨 탄식 대 왈,
“첩도 미상불*” 그러하을 줄 아오되,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의로 못 하거니와, 얼마나오래 견딜 수 있을꼬.”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차설, 채 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슬하에 배알하고 그간 존후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물으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차시에 채 씨의 부친은 죄승상 재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일곱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

차시에 채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쇠한 집에 딸을 출가 시켰다가 문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운의 죄상을 주달하니, 차시 위 시량이 경사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운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위 상서가 천운에 속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종형 직금랑 반희가 궐중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금일 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 상서로 성충을 기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이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인정케 하여지이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이까.”

상서가 양천 탄 왈,
“이는 간인이 있어 모해함이라. 그미니 어찌 기군이리 하시고. 이제 그지 있지 못하리니 궐하에 대죄하리라.” 희 왈,
“들으니 형이 채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하거늘, 상서가 탄식하고 궐하에 나아가니, 반희가 참여하여 하더라.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 왈,

“집이 어찌 사람을 그릇 쓰리오. 위운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집이 수족을 삼았더니,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 하도다.”

채영이 주 왈,
“위운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데 후환이 있을까 하나이다.”

제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묵묵*이라. 상이 위·반 이 인을 아끼시나 조신 중 일인도 변백지 못하는지라, 할 수 없어 위운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 마지아니하더라.

(중략)

화설,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 씨가 삼 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음일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 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 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하니, 창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 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일위 부인이 대호 왈,
“미구에 액이 당도하였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 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하리라.”

반 씨 대경하여 급히 흥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흥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시이다.”

하고, 모친을 불러 한 피를 넘여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피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 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테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흥이 대 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 주며 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흥의 모자가 받아들여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더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오.”
 흥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중, 반 공과 위 상서가 원찬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반씨전」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기군망상: 임금을 속임.

*상고목목: 서로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잠잠함.

*원찬하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다.

*존고: '시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통해하다: 몹시 이상스러워 놀란다.

*변백: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

*음일: 마음껏 음탕하게 놀.

르다국어연구소

반씨전 - [고3 2012년 4월 학력평가]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승상의 차남 위진의 부인 채씨는 장남 위윤의 부인 반씨를 모해한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 양부인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 채씨가 부친을 움직여 반씨의 남편 위윤, 부친 반공을 유배 보낸다. 이에 양부인은 득병하여 죽고 위진은 채씨를 불러들인다. 채씨가 반씨와 그녀의 아들 위흥을 모함해 집에서 쫓아내려 하자 반씨 모자는 양부인 묘 근처에 거처를 정한다.

일일은 흥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홀연 한 사람이 청사도복(靑絲道服)에 청사자(靑獅子)를 몰아 들어오거늘, 흥이 마당으로 내려와 맞이하여 예를 마치고 살펴보니, 풍채가 표일단야(飄逸端雅)한지라. 마음에 기이하게 여겨 공경 문왈,

“도인께서 누추한 곳에 임하시 미천한 아이를 찾으시니 황공하여 이다.”

도인 왈,

“지나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한번 보고자 왔거니와, 성명이 무엇이뇨.”

대왈,

“위흥이로소이다.”

도인 왈,

“듣던 바와 같도다.”

흥 왈,

“그런즉 이적선이시니이까.”

도인 왈,

“그러하다.”

흥 왈,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래로소이다.”

도인 왈,

“양부인이 옥경(玉京)에 득죄하고 인간에 적거하였다가 도로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계시니, 군의 모자를 잊지 못하여 태을(太乙)께 청하여 나를 보내었으니 세상 사람이 알게 말라.”

하고, 인하여 밤마다 와서 글을 가르치니 일년만에 고금(古今)을 통하니 반씨가 감격하여 사례하고자 하되 밤에만 왕래하니 얼굴을 보지 못할러라.

화설, 채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仙官)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씨가 삼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A]래 이같이 음일(淫佚)*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삐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사내중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하리라.”

하니 사내중이 저마다 좋아서 뛰어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非夢似夢) 간에 양부인이 큰소리로 왈,

“오래지 않아 액이 당도하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枕上一夢)이라.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하리라.”

반씨 대경하여 급히 흥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흥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삐 피하시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어 한 피를 넘어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피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찾으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㉓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 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 하느뇨.”

흥이 대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주며 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흥의 모자가 받아 먹으며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神靈)이더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揚江)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가까우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村中)에 들어가 리오.” 흥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潘府)를 찾아 나아가니,

유부인이 반씨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秀美)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공과 위상서가 유배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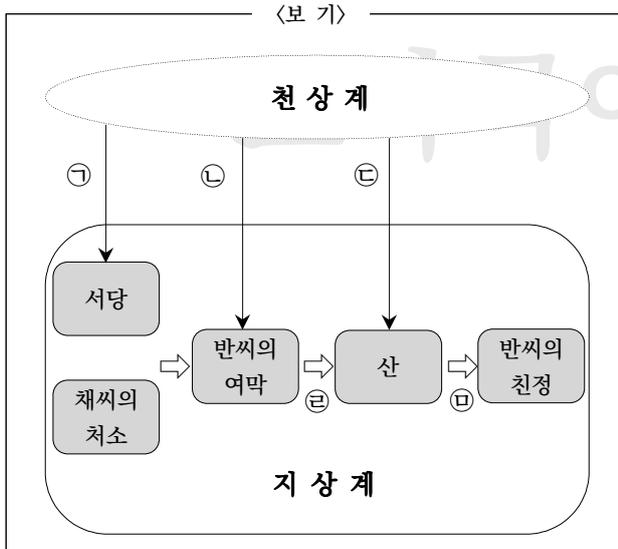
- 작자미상, 「반씨전」 -

* 음일(淫佚) : 음란하고 방탕하게 놀.

* 쇠락(灑落) :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반씨는 위홍과 달리 이적산을 만나지 못했다.
 - ② 위홍은 도적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 ③ 위진은 사내종을 시켜서 반씨 모자를 해치려 했다.
 - ④ 반씨 모자는 산에서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⑤ 반씨는 지금의 처지로 친정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39. 위 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 인물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관련이 깊다.
- ② 천상계 존재가 위험에 처한 지상계 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과 ㉢에서 각각 다르다.
- ③ '채씨의 처소'에서 일어난 일은 지상계 인물들의 이동인 ㉣ 과 ㉥의 원인이 된다.
- ④ 지상계 인물의 공간 이동인 ㉤은 천상계 존재가 피신처인 '산'을 안내해 준 ㉡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⑤ ㉠, ㉡, ㉢에서는 모두 천상계 존재인 '양부인'이 사건 전개에 개입하고 있다.

40.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부추기고 있다.
- ② 상황을 가정하여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④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41. ㉠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사일생(九死一生)
-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반씨전 - [고3 2020년 10월 학력평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양 부인에게 삼 형제가 있는데, 맏이 위운은 현숙한 반씨를 아내로 맞아 아들 흥을 얻는다. 위진의 아내 채씨와 위준의 아내 맹씨가 반씨를 모해하자 양 부인이 채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채씨의 부친 채 승상은 이에 분노하여 위운을 귀양 보내고, 양 부인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반씨가 시체를 붙들고 통곡 혼절하니, 흥이 대경하여 수족을 주무르며 약물을 드리오니 이윽고 진정하거늘, 흥이 위로 왈,
“모친은 진정하사 초상을 극진히 하소서.”

반씨 망극한 중이나 그 말을 옳게 여겨 치상(治喪) 할새 문중이 모여 채씨에게 부고를 알릴 것을 의논하니 위진이 왈,

“㉠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내 계시니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오.”

하고, 즉시 시비를 불러 왈,

“채씨의 집에 가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끊으리라.”

(중략)

차설,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상중에 시비(是非)를 돈우어 요란하게 하느냐.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니, 두 번 이르지 말라.”

하고 노복을 재촉하여 보내니, 흥이 죽은 양 부인의 옆에 엎드려 통곡하더니 큰 소리로 왈,

“숙부는 주장이 되었을 따름이거늘 초상 망극 중에 벌써 할머니의 유언을 저버리시니, 한갓 아내만 중히 여기사 저다지 노하시니, 소질*이 알 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며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니이다.”

반씨가 꾸짖어 왈,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히 어른을 시비하리오.”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이는 분명 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듣고, 내 말이 여차여차하거든 너는 대답을 이리이리하라 한 것이 아니더냐. 너에게 기결한 사람은 극한 요물이라. 너 혼자서 말이라면 어찌 이러하리오. 내 비록 유약하나 네 말대로 시행할까 보냐.”

하니, 모든 친척이 칭찬 불이더러.

흥이 숙부의 불측한 심사를 듣고 큰 소리로 왈,

“㉡ 아까 소질이 사된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 하시니, 말씀이 옳사오면 따를 것이요,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면 따를 이유 없으니, 할머니의 상사를 당하였어도 부친이 삼천리 밖에 계셔 상변(喪變)을 알지 못하고 발상*도 못하오니, 비록 아니 계시나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禮文)에 당당하옵거늘,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하시나니 이까.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

위진 형제 왈,

“㉢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하였으나,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 예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 불가하니라.”

모든 사람이 왈,

“흥이 비록 어리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이거늘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바빠 대상하라.”

위진 형제가 큰 소리로 노하여 왈,

“어찌 어린아이의 말로 인하여 상중 대사를 그릇되게 하리오. 우리는 예문대로 하리니 어찌 장자를 두고 대상하리오.”

하고 일시에 피신하니 문중이 상의하여 왈,

“상인(喪人)이 이제 우리를 피하니 더 있어 무엇하리오.”

하고 상복 입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니, 흥이 망극하여 실성통곡 왈,

“우리 집의 가세는 어찌 남과 다르고. ㉣ 숙부가 불의를 행하여 문중이 따로따로 흩어지니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

말을 마치기 전에 채씨가 이르러 부인의 영위*에 곡하고 반씨를 보며 왈,

“나는 시택에 득죄하여 본가에 있기로 존고*께 통신을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그대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어찌 존고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지하였느냐. 그 사이 우애가 지극하여 저 나를 기다렸다 죽으려 하였느냐. 지금도 참소와 아침을 존고께 고하리었고.”

하고 욕설이 무수하니, 반씨가 분함을 겨우 참아 다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채씨가 흥을 꾸짖어 왈,

“너는 황구소아*라 무슨 일을 아는 척하고 우리를 원수로 지목하니, 네 그러면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흥이 대답치 아니할 뿐이더라. 장례일을 당하니, 부인을 선산에 안장하고 집안을 정리할새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니, 두 사람이 주야로 남편을 미혹하게 하여 반씨 모자를 백 가지로 모해하니, 반씨가 흥을 불러 왈,

“㉤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毒手)를 면치 못할지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하고, 인하여 양 부인 묘소에 초막(草幕)을 짓고 삼년상을 마친 후에, 다시 거취를 정하고자 하여 이에 약간의 비복을 거느리고 조상을 모신 사당에 올라 통곡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니,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비참해 하지 않음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반씨전」 -

* 주장 :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또는 그런 사람.
* 소질 : 조카가 아저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발상 : 상례에서 초상난 것을 알림.
* 대상 : 장자가 없을 시 장손이 대신 상례를 주관함.
* 영위 : 상가에서 모시는 혼백이나 가주(假主)의 신위.
* 존고 : 시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황구소아 : 철없이 미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흥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 ② 채씨는 자신을 본가로 보낸 양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
- ③ 반씨는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위진을 질책했다.
- ④ 문중 사람들은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 ⑤ 위진은 위윤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상할 것을 주장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며 자신이 하려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5.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은 가문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중시하였고,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문중의 공론과 예문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장자의 부재 시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상을 행할 수 있다는 상례에는 이러한 위계질서가 잘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家權)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 ① 위진이 채씨에게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고 한 것에서,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질서를 따라 상례를 치르려 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위진이 ‘상중에 시비를 둔’ 운다며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 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위진이 가권을 차지하는데 반씨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흥이 예문을 근거로 ‘장자 장손이 발상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문중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흥이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채씨가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고 흥을 꾸짖는 것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채씨의 욕망이 흥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군.
- ⑤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반씨 모자가 ‘산중으로 들어’간 것에서, 가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가권이 위진 쪽으로 기울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수능특강 수록 지문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 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이 이어질 것이라던 예언을 들은 조 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 채임과 정혼시킨다. 이후 채임의 부친 정 참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북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을 속이지 마라. 우리는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앵과 벽란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를 보았다.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여 골격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아가 누워 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반악(潘岳)*의 고음과 위계(衛玠)*의 미려함을 비웃는 듯하였다. 춘앵과 벽란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하였다. 벽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물으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 내어 다시 살려 준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어진 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군자구나.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른대로 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경히 받들어 사례하며 말하였다.

“천인(賤人)들은 민가의 시비이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께서 태평성대에 액경(厄境)*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강도의 흉악한 자취가 목전에 급하여 천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운 편했는데, 상공의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의 살려 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감히 문사온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 다 고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귀덕의 시비 항렬에 들어가 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두 공자는 두 사람의 연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임을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히 기특하다. 우리는 조 상국 자제로 선영(先塋)에 절사(節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 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벽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혼하고 빙폐*를 받은 조 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요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저의 뜻을 몰라 아뢰었다.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강 안에 들어가 소저께 조 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 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에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뢰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몸소 사례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벽란과 춘앵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 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 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조 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 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정 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덕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 참정을 보채 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 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른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 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으로 바꿔 입고 소저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신 은혜를 만나 주 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 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정 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십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홍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광채가 어리었다. 용홍이 말하였다.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이에 둘째 공자와 의논하고 본부의 강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 까닭에 한 대의 교자를 세내어 소저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서서 정 소저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두 명의 시비가 지키고 기늘고 길게 누에고치를 쳐서 길쌈하여 정 소저에게 올렸다. 두 공자는 정 소저의 근본을 모르는 체하고 강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였다. 소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연지 못하고 있다가 벽란 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호함을 모르고 있었다. 소저는 두 공자가 종내 살 도리를 이끌어 주는 것에 감사해하고 설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에 이르렀다.

두 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전한 처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저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저녁의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서 올리라고 말하였다. 또한 포진(鋪陳)과 병풍과 장막을 정결히 하여 정 소저를 머무르게 하고 집 안팎의 비복에게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저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하였다. 춘앵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치를 기다리라고 하고 또 소저에게 말을 붙였다.

“소생이 비록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저의 재앙이 대단하십니다.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곳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積善)을 일삼으시니 돌아가 아뢰어 혹시라도 소저께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저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현히 떠났다. 벽란 등은 탄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소저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요행히도 그 남자가 조 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 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음과 옥같이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두루 기이하고 괴이함을 슬퍼하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저는 깊이 집 안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의 음식 걱정이 없고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하였으나 두 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반약: 서진(西晉)의 문학가. 어릴 때부터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용모가 준수하였음.

*위개: 진(晉)나라 안읍의 사람으로, 뛰어난 외모와 수려한 인품으로 알려짐.

*액경: 모질고 사나운 운수의 고비.

*빙페: 혼례를 올릴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예물.

현몽쌍룡기 - [고1 2024년 11월 학력평가]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정 소저는 계모 박 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 정공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집에서 나와 숨어다니던 중 도적을 만나 강물에 몸을 던진다. 이때, 정혼자 조무(용흥)와 동생 조성이 정 소저를 우연히 발견하여 구출한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에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뢰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몸소 사례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벽난과 춘영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 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조 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A]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 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主君)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택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단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남장으로 바뀌 입고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저의 고모이신데, 그 분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 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정 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흥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 용흥이 말하였다.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중략)

석공이 소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B]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설마 어찌하겠느냐? 손녀가 어린 나이에 효성과 절개와 지혜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완고한 아버지와 어리석은 어미의 흉계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여 명철보신(明哲保身)한 것이다.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전하고 죽은 어미의 남긴 가르침을 이으니 네 아버지가 흙과 나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혼한 후에 서로 만나서 부녀가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찌 너를 책망하며 혼인을 한 것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모든 일에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할 때와 임기응변의 방법이 있다. 이제 조 상국이 밖에 와서는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양하느냐?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하여 혼인을 관장할 것이다.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다시 이상한 말을 내지 마라.”

소저가 조 상국이 왔다는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하고 놀라며 부끄러워 옥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 눈썹을 나직하게 낮추고 또 아뢰었다.

“소녀의 도리로 차마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 하겠습니다. 조 상국은 당세(當世)의 군자이십니다. 원컨대 조부께서는 손녀의 보잘 것 없는 마음을 살피시어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조모와 삼촌의 안부와 동생의 무사함을 묻고는 슬프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석공이 밖으로 나와 조공을 보고 손녀와 묻고 대답한 말을 일일이 전하고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손녀의 마음이 금석(金石)같아서 저의 용렬하고 어리석은 말로 알아듣도록 타이려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조공이 무릎을 치며 몹시 탄복하고 칭찬하며 말하였다.

“정 소저의 일과 행동은 여자 중에 군자입니다. 이것은 다 현형(賢兄)의 높은 교훈에 힘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어찌 아버지의 어질지 못함을 한탄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부와 의논할 말이 아니니 현형이 혼인을 권장하십시오.”

석공이 이 말을 옹기여겨 다시 소저에게 묻지 않고 혼례를 준비하였다. 석 학사 부인이 나오고 석공 부인이 정 공자와 함께 나와 소저를 보았는데 서로 붙들고 매우 오열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소저는 그리워하던 아우를 만나니 반갑고 기쁜 뜻이 서로 뒤섞여 일어났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비유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4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벽난과 춘앵은 정 소저가 조 공자와 정혼한 인물임을 밝혔다.
- ② 정 소저는 이평장 부인이 이사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 ③ 조 공자는 정 소저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 ④ 석공은 조 상국이 정 소저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말했다.
- ⑤ 석공 부인이 정 공자와 함께 나와 정 소저를 보았다.

44.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의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에게 다른 인물의 말을 전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상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상대에게 언급하고 있다.

45. 다음은 윗글을 읽고 문학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몽쌍룡기」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담고 있다.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은 친정 식구들로 인해 혼사가 지연되는 등의 고난을 겪음에도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덕목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당시 여성 독자층의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 ① 정 소저가 친정 가문의 허물을 조 공자가 알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내의 어질지 못한 인물로 인해 정 소저가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것에서 고난이 친정 식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두 공자가 정 소저의 사연을 듣고 굳은 절개에 감동받았다는 것에서 정 소저가 당대에 요구되던 여성의 덕목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④ 정 소저가 아버지를 속인 채로는 혼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따르고자 함을 알 수 있군.
- ⑤ 조공이 정 소저를 군자라고 칭하며 혼인을 진행하려는 것에서 정 소저가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혼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군.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만조(滿朝)를 거느리시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궁하실새 성 안 밖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歡聲)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바로 대전(大殿)에 들어가시니,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움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낮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시매,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苦行)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풀속에 선인(仙人)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고 하고, ‘금일 오시(午時)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 그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父皇)과 모후(母后)를 만나리라.’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며,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의 전말을 낱말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로시되,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런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몸쓸 짐승을 없이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네 덕이요 장해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이에 황극전으로 나아가 전좌(緘坐)하사 문무 신하, 종신과 외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사은하온대,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늙름하여 만고의 영웅 준걸이요 일세의 호걸 장부라.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여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河海)가 얕은지라. 그 값을 바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왈,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대,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족히 경의 건줄*을 받을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실새 바삐 예부에 명하사,

“택일(擇日)하라.”

하시고, 호부에 조서를 내려 하교하사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하시고, 한편 예부로 하여금,

“혼구(婚具)를 갖추어 차리라.”

하시니라.

해룡이 천은(天恩)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사례하고 물러 나와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새,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중략 부분 줄거리] 부마가 된 해룡은 복흥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이때 어사의 행로(行路)가 서울로 향할새 길이 뇌양현을 지나는지라. 뇌양현에 이르러 객사에 숙소를 정할새,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새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는지라.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결의하고 말하되,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업을 천하에 떨쳤으며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들으며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새, 어사가 문득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같거늘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물어 왈,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옵니까?”

하니 사또가 슬퍼하여 말,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잃은 지 십팔 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異人)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 주기로 걸어 두고 보나이다.”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發說)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문 왈,

“그 족자는 어디서 났소?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 주시오.”

하거늘,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여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

이 갈 때에 족자를 주고 간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가로되,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하고, 또 가로되,

“이 족자도 금령이 붙여 온 것이요.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고 마침내 절색(絶色)이라.”

하고, 또 가로되,

“이 족자도 금령이 붙여 온 것이요.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絶色)이라.”

하고,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일곱 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통곡하는 사도가 또한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나와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 차시에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누 아니 이상히 여기리요?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 고(告)하여 왈,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 그 죄 만사무식(萬死無憾)*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입사**: 죽고 사는 문제. 부모의 어머니인 태위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를 함께 이르는 말로 그 뜻은 부녀가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잘 지킨 인물을 두루 일컫음.

***건줄**: 수건과 빛을 뜻하며,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결속하게 이르는 말로 쓰임.

***만사무식**: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함.

르다국어연구소

금방울전 - [고1 2008년 9월 학력평가]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룡이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적어 편하였다.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문득 벽력 소리가 진동하며 금터럭 돌힌 괴이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머리 아홉 가진 악귀가 되어 금령을 집어 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크게 놀라 낙담하여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홀연 한 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려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문득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쇠조각 하나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골짜기로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변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 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묘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며,

㉠ '남전산 봉래동'

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 위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그 곳을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주궁때궐(珠宮貝闕)*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뵈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

라 써어 있었다.

원래 악귀는 천지개벽 후에 일월의 정기로 생겨나서 득도하여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무궁하였다. 해룡이 문 밖에서 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윽고 안에서 여러 여자들이 나오거늘 해룡이 급히 풀 사이에 몸을 숨겨 동정을 살폈다. 여자들이 시냇가에서 피 묻은 옷을 빨며 서로 말하되,

"우리 대왕이 전일에는 신통이 거룩하여 당할 자 없더니 오늘 나가시더니 홀연 속을 앓아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하니, 그런 신통으로도 이런 병을 얻었으니 일찍 나오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낫지 않으면 우리들의 괴로움이 되리다."

하였다.

그 중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공주 낭랑이 간밤에 ㉡ 꿈을 꾸니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와 이르되, '내일 오시에 수재 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악귀를 잡고 그대를 구하여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로서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그대가 이리 됴도 또한 천수라. 부디 천명을 어기지 말라' 당부하고, '누설하지 말라' 하시더니, 오늘 오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그런 꿈도 허

사인가 하노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도 언제 이곳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뵈우고." 하며 슬피 탄식하였다.

해룡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풀을 헤치고 내달으니, 그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려 하였다. 해룡이 만류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은 놀라지 말라. 내가 악귀를 없애고자 여기 들어왔으니 그 악귀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치라."

그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공주 낭랑의 꿈을 생각하며 신기하였다. 이에 나아가 울며 아뢰기를,

"그대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해룡을 인도하여 들어가니, 중문은 첩첩하고 전각은 아름다운 곳에 흥악한 짐승이 신음하여 앓는 소리가 들렸다.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배를 움키고 일신을 뒤뚱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고 거꾸러졌다. 해룡이 이 형상을 보고 악귀를 처치하고자 하나 손에 쇠조각 하나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붉은 치마를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가져다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받아 들고 달려들어 악귀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터럭 돌힌 흥악한 돼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여자들이 다 악귀로서 사람으로 변하여 속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꿇어 아뢰기를,

"우리들은 악귀가 아니라 우리 팔자 기구하여 몸쓸 악귀에게 잡혀 와 협악한 욕을 보고 수하에서 시중을 듣게 되어 죽지도 못하고 이곳에 할 수 없이 있는 사람이로소이다. 아까 보검 갖다 주던 이는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입니다."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미인이 슬픈 기색으로 나아와 사례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로서, 6년 전에 모후 낭랑을 모시고 후원에서 달을 구경하며 즐기다가 이 악귀에게 잡혀 와 시비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욕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게 되니 이 은혜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로 낮을 가리고 목이 메어 흐느끼거늘 해룡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금령(金鈴) : 금방울.

* 주궁때궐(珠宮貝闕) :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물로 호화롭게 꾸민 궁궐.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해룡이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 공간이다.
- ② 궁궐과 성곽을 갖춘 것으로 보아 현실 세계를 본뜬 비현실적 공간이다.
- ③ 악귀의 소굴임에도 경계가 뛰어나고 신경의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공간이다.
- ④ 해룡이 힘들게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현실계의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 ⑤ 잡혀온 공주와 여자들이 악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45. <보기>는 위 글의 근원 설화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옛날 악귀가 임금님의 세 공주를 납치하자, 임금은 누구든 공주들을 구해 오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때 무신이 나서서 하인들을 데리고 악귀의 소굴을 찾아 해매는데,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악귀의 굴을 찾는데 성공한다. 지하 소굴로 내려간 무신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악귀에게 접근하고 공주들의 도움으로 잠든 악귀를 죽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소굴 밖에 있던 하인들의 배신으로 공주만 탈출하고 무신은 굴 속에 갇히고 만다. 이때 산신령이 나타나 말 한 필을 주어서 무신은 그것을 타고 무사히 소굴 밖으로 나오고, 배신한 하인들을 벌한 뒤 막내 공주와 결혼한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 ① <보기>와 달리 위 글에는 하인들의 배신 등과 같은 요소는 없군.
- ② 위 글과 <보기> 모두 악귀를 물리치는 데 공주가 도움을 주고 있군.
- ③ 위 글과 <보기> 모두 중심인물이 악귀의 소굴에서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 있군.
- ④ <보기>의 '무신'은 평범한 인물로, 위 글의 '해룡'은 비범한 인물로 나타나 있군.
- ⑤ <보기>의 무신은 '공주'를, 위 글의 해룡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악귀의 소굴에 가게 되었군.

4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해룡의 전생 신분을 알려 줌으로써, 해룡이 고귀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 ③ 천명을 지켜야 함을 당부함으로써, 해룡과 공주의 인연을 예고하고 있다.
- ④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함으로써, 공주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선관이 내려와 말을 전함으로써, 하늘이 공주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47. ㉢과 가장 관련 깊은 한자성어는? [1점]

- ① 각골난망 (刻骨難忘)
- ② 노심초사 (勞心焦思)
- ③ 오매불망 (寤寐不忘)
- ④ 학수고대 (鶴首苦待)
- ⑤ 풍수지탄 (風樹之嘆)

금방울전- [고1 2023년 3월 학력평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생에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해룡은 피란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 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 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질을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홑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 보니 밤에 못다 찧은 것이 다 찧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북만 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 씨 모자는 추위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 보니, 눈이 쌓여 온 집 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 씨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 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 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쓸러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 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 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 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A]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후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 씨가 짐짓 말리는 체했다.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 씨는 문밖까지 나와 당부하며 말했다.

“쉬이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송냥이와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 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침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해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리치려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러졌다.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 버렸다.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 거듭 사례했다.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 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에 보내고 생각했다.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다.’

변 씨가 집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나아가 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변 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체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 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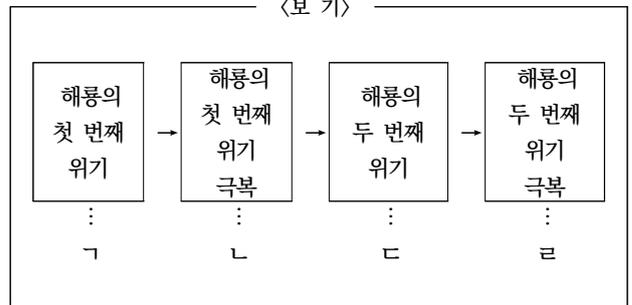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가군 :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

4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 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다.
 - ② 변 씨는 해룡을 도운 것이 금방울이라는 것을 몰랐다.
 - ③ 해룡은 밤에 방아질을 하다가 추워 방 안으로 들어갔다.
 - ④ 해룡은 방 안에서 움직이는 금방울을 보고 신통해 했다.
 - ⑤ 금방울은 구호동에서 사라진 후 해룡보다 먼저 방에 도착했다.

4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언급하며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은 집에서 일어 죽게 될, ㄷ은 구호동에서 짐승에게 해를 입게 될 상황이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해룡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는 상황이다.
- ③ ㄴ은 장차 해룡에게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한 변 씨가 ㄷ을 계획하는 계기가 된다.
- ④ ㄴ과 ㄹ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금방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 ⑤ ㄱ ~ ㄹ의 과정에서 해룡은 결과 속이 다르게 자신을 대하는 변 씨의 이중성을 눈치채고 반발하게 된다.

금방울전 - [고3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튀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문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테서 남의 방아를 찿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받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랄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닷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흡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누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를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축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낱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A]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낫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므로 되 기늘게 썼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놓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1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떨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6.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수능특강 수록 지문

바야흐로 건안 12년 11월 15일이라. 날은 맑고 파도는 고요하다. 조조는 사기를 진작코자 큰 잔치를 여는데, 술 많이 거르고, 떡 많이 치고, 소 많이 잡고, 돼지 많이 잡고, 개 잡고, 닭 잡아서 군사를 위로한다. 쇠사슬로 묶은 전선(戰船) 강 중앙에 두둥실 띄우고 황금 대자 커다란 깃발 앞세우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채*를 만들고, 천 명의 궁노수 사방에 매복시켰네.

이때 조조의 거동을 보소,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玉帶)를 쥐고, 금관(金冠)을 쓰고,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그의 좌우에 모신 장수 황금 투구 쓰고 비단 갑옷 입고, 창도 메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벌였는데, 동산에 달 오르니 대낮과 한가지인지라.

장강 일대 맑은 강물 흰 비단 펼쳐 놓은 듯, 남병산 기운 봉우리 그림 병풍 두른 듯, 아름답기 그지없다. 동쪽으로는 시상, 서쪽으로는 하구, 남쪽으로는 번성, 북쪽으로는 오림이라.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활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 조조가 창 빼 들고 좌우 장수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어포를 붙잡았다. 원수를 멸했고, 원소를 거두었다. 북쪽으로는 요동까지 쳐들어갔고, 남쪽으로는 유종을 무릎 꿇렸지. 이렇게 천하를 중흥무진으로 뛰어나다 까닭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을 저버리지 아니함이라. 사해를 평정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곳이 강남이니, 백만 장병 거느리고 여러 장군 힘을 입어 강남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노라. 강남을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으니, 강남 교 공의 두 딸은 경국지색이라. 하나는 손책의 처, 다른 하나는 주유의 처가 되어 내 항상 한탄이라.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二喬女)를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며 늠름하게 즐겨 볼까 하노라.”

남안을 가리키며,

“주유와 노숙은 천사를 모르느냐. 내 군사 거짓 행복 네 복심(腹心)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오.”

하구를 가리키며,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그리 아둔하여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와 같은가.”

조조가 한참 장담할 제, 난데없이 까마귀가 남쪽 하늘을 향해 까악까악 울며 가니, 조조가 물어,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는고?”

좌우 장수들이 답하기를,

“그 까마귀 달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우나이다.”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며 노래지어 부른다.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좌우의 장수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 주홍이 무르익을 적에 양주 지시 유복이 나서서 말한다.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장사(壯士)가 명을 받들 제,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 있사오니 이게 웬일이요?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라니, 그 말씀은 상서롭지 아니하오.”

이 말에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 질러,

“내 속의 흥을 내가 어찌 감히 깨느냐!”

창으로 유복을 쾅 찌르니 좌중이 다 놀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전쟁을 앞둔 조조의 군사들은 각자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탄식하며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옆에 무슨 울음소리 쇠끝같이 되게 나도, 사람은 아니 뵈어 좌중이 의심한다. ◎이게 어인 변고인가. 한참을 찾으니, 병거지가 울고 있네. 좌중이 이두동성으로 말하누나.

“이게 큰 변고로다. 저 병거지 잡아다가 강물에 내버려라.”

한 군사가 병거지 집에 들고 끌고 가려 하자, 병거지가 더럭더럭 기를 쓴다.

“이놈들이야 내 목는다.”

병거지 젖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부채고리에 매어 다는 장식품만 한 작은 사람 병거지 끈에 달려 있다. 좌중이 묻기를,

“네가 무엇이나?”

“내사 선봉 장협의 화병(火兵)이제.”

좌중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키는 쥐방울만한 게 말수는 푹푹하네. 집 창자만 한 네 뺨속에는 무슨 설움 들었느냐?”

“내 설움이 참 설움.”

“말해 보아라. 들어나 보자.”

“우리 집에 있을 적에 새끼 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꼬랑지에 공작 깃털 꽃고 받침대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며 온갖 정성 다했제. 근디 급히 잡혀 오느라고 못 가지고 왔기에 밤낮으로 그놈 생각.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 내 마음 절통하여 어찌 살겠는가?”

좌중이 크게 웃고 말한다. “실없는 자식이다.”

이어 군사 하나가 씩 나서며,
“너희는 가까운 것 버리고 먼 것 일만 생각하네. 집 생각 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해라. 군사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 듣지도 못했는가. 승상님은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 정녕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말 터이니 우리 신세 어찌 되겠는가. 산 처럼 쌓인 시체가 까마귀와 솔개에 파 먹혀 끝내 재갈이 날려 마른 나뭇가지에 걸리리. 살과 피는 다 마르고 바람에 바스라져 비에 씻길 제, 남은 뼈라도 챙겨 묻어 줄 이 님 있으리.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뺨골.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 하는 듯.’ 옛사람이 지은 풍월,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죽는 날도 모를 터니 제사 지낼 줄 이 님라서 있을 텐가. 애고애고 설운지고”
서러운 말들을 한창 하고 슬픈 눈물 도처에 흩뿌릴 제, 현결찬* 풍채의 군사 하나 들어온다. 살기 가득 품은 그놈의 모양새가 이 세상을 꿈인 양 짐작하고 들어온 놈이라. 좌증을 꾸짖으며 일갈한다.

“이 손들이 의젓하지 아니하네. 전쟁에 나온 놈이 고향 생각 어디가 쓰리. ……천지개벽 이후로 싸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랴. 한나라의 운 다하니 삼국 싸움 생겼구나. 우리네 이 한목숨, 군사 되어 전쟁터에 나왔으니, 어찌 이내를 그리워하며, 생각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치달리는 말을 타고, 삼척점 둘러메고 물불 아니 가리고 오나라 한나라의 장수를 향해 달려든다. 그들 머리 한칼에 베어 들어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게 대장부 바라는 바,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으리.”

한 군사가 일어나 대답한다.

“참말로 각자 말에 각자의 뜻 들어 있구나. 군신유의(君臣有義)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까마귀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로 모르겠다. 네 신세가 개기환향할는지, 소기환향할는지.”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장난치고 노는구나.

- 작자 미상, 「적벽가」

* 수채: 물 위에 세운 군대의 진영.

* 현결찬: 매우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듯한.

르다국어연구소

적벽가 - [고3 200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모리] 장항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 날아 나
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
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
나이까?”

“아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
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소
서.”

“아야, 진정으로 조용하나?”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곱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밟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
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
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
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기려 우더니라. 나
무 나무 끝끝트리 앉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불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촌비 노략 한때로구나, 소탕
소탕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
고, 입삐죽 입삐죽 저 삐죽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
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가 까옥 저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쑥국 쑥쑥국. (중략)

㉡ 처량하구나 각 새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
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
고 무슨 일로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

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
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염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이는다 모르
는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듯! 장졸의 머리가 추풍
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멩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멩기령 베고,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
어갈 제, 피 흘려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사(軍
師).



41.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육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2.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4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얽힌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텅 소텅' 하고 우는 것은 '소맹(솔뚜껍)'이나 '솔이 텅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산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간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쑥국 쑥쑥국'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4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적벽가 - [고3 2013년 7월 학력평가]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명은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관공이 혹시 조조를 놓아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관공은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오겠다는 군령장을 쓰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다. 쫓기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공에게 잡히는데, 조조는 과거 관공의 목숨을 살려 준 적이 있었다.

[아니리]

칼을 번쩍 빼어 들고 조조 앞으로 바짝 달려드니 조조가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추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웃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나.”
 “글쎄요, 그러기에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 하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 는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정을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웃으시며 조조의 지기(志氣)를 떠보려고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어낼 듯,
 “검여두이혼인(劍與頭而婚姻)하면 생기자유혈(生其子流

[A] 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 씻으라 함이 로다.”
 목을 넘겨 땅을 킁 찌르니 조조 정신 아찔해야 군사들을 돌아보며,
 “아들이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아 프잖게 잘 도려 가신다. 내 목 있나 좀 보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거늘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좋삽기로 말은 겨우 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래 조조의 은혜를 입은지라 조조를 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진모리]

주창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찌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 살려 두려 하시는지.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의 모진 범여 함양을 파한 후 홍문연 앓은 패공 무심히 거저 놓아 항장(項將)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 계명산 추야월에 장량(張良)의 옥통소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 흘었으니 오강풍랑 자문사(自刎死)라. * 하물며 조조는 처세에 능하고, 난세에 간웅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 주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 목살을 팍 잡으며,
 “왕의 목숨이 주창의 손에 달렸도다. 내 손에 달린 목숨 네어 디로 피할소냐.”
 냅다 잡아끄니 조조 놀래 벌벌 떨며,

“여보 주 별감(周別監) 술 많이 받아 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시오.”

관공이 웃으시며,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숨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돌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노하며,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중모리]

조조 듣고 말 아래 푹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겁하여 장군 말 아래 가 두 손 합장 비는디 사람의 인륜에 못 볼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천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 하오리다.”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나 죽기는 설잖으나 가냘픈 너희 모습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풍파에 곤한 신세 고향 가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가냘픈 우리 모습 설마 살려 주시제 죽일소냐.”

[B] 관공이 꾸짖어 왈,
 “이 놈 조조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령장에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할까.”
 조조가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믿사오니 초수(草獸)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가드래도 죽이지는 않으리다. 장군님 타신 말과 청룡도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관공이 감심하여 조조를 놓아주고 말을 돌려 돌아가니 세인이 노래를 허되, ‘슬겁구나,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가 살아가니 천고에 늙름한 대장부는 관공인가 하노라.’

[아니리]

관공은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앞드려 왈,
 “용렬(庸劣)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 주었사오니 의율시행(依律施行) 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 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요.”

[엇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공 @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미상, 「적벽가」

*강동의~없었고: 한나라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고사.

*계명산~자문사라: 한나라의 전략가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초나라 군대를 해산시켜 항우를 자결에 이르게 한 고사.

31. 윗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욕망의 틈에 걸려 쓰러지며
 - ② 의리를 지키려 균율을 어기고
 - ③ 백성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닿아
 - ④ 패잔병의 슬픈 노래 전장을 울리며
 - ⑤ 권력 투쟁에서 밀려 쓸쓸히 사라지고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② [A]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B]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 울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관습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다.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작품 속 인물 탐구'에 대한 보고서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벽가 인물 탐구>	
 <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조'와 대면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에서 위엄 있는 장군의 면모가 드러난다.…… ① ◦ '조조'에게 도움 받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조'를 놓아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②
 <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지에 몰려서도 자신의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③ ◦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 적장에게 빌고 있는 모습에서 비굴한 패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④
 <주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설이는 '관공'과 달리 적장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모습에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면모가 드러난다.…… ⑤

34. ㉓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